

대학별고사의 특성과 발전방향

전 성 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1. 대학별고사 재도입의 배경

고등학교 내신성적, 수학능력검사, 그리고 대학별고사를 주요 요소로 하는 94년도 대입시제도는 돌출적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라 교육개혁심의회가 85년부터 여러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제안된 내용을 6년 동안의 연구와 심의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것이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단일 지수에 의한 학생선발의 획일성을 탈피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다. 선발의 요소가 다양화됨으로써 어떤 한 요소의 절대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입학 학력고사와 내신만으로 입학이 결정되는 종래의 체계에서는 학력고사의 위력이 너무나 커서, 모든 것이 이것에 집중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도 컸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내신 1등급에 학력고사 점수 270점 하면 가야할 대학과 학과가 사전에 결정되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었고, 그러한 것을 결정해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엄청나게 번성한 입

시산업 기관들이었다. 인간의 능력을 단일지수로 표현한다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그 지수에 의해서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 버린다는 것은 우리 사회와 같이 인생의 과정에서 선택의 여지가 별로 다양하지 않은 곳에서는 더욱 위험한 일이다.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학력고사 점수에 의해서 쓸 세 위진 행렬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좌절감을 느꼈을 것인가? 그런데 그 학력고사는 출제의 형태가 4지 선다형의 객관식일 수밖에 없었으므로, 인간의 고차적인 정신능력을 측정하는 데에는 어차피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4지 선다형의 경우, 정답을 모르고도 추측으로 맞출 수 있는 확률은 25%나 된다. 답지가 잘 작성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확률이 50% 이상으로 늘어난다. 결국 선다형 문제로는 진짜 실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된다. 실력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대신에, 눈치껏 정답을 고르는 능력을 측정한다면, 그것은 교육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계획적으로 개발시켜주는 것이

다. 그런데 깊고 큰 잠재력을 개발하는 대신에, 얇고 가벼운 잠재력만을 키워준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답인 것과 아닌 것을 요령있게 식별하는 능력과 센스만을 길러준다면, 그러한 교육을 통하여 우리는 오히려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깊게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흑백논리에 집착하고, 감각적으로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젊은 세대는 바로 우리의 교육체제가 선다형 문제로 선발해서 선다형 문제로 십수년간 키워낸 사람들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 사회가 꼭 차게 될 때, 우리 사회는 바로 눈치와 요행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벌써 그러한 조짐은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학 입학시험 제도의 개선은 여러 가지 이유와 명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개혁 없이는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어려운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새 입시제도의 한 요소인 대학별고사는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되돌려 준다는 명분 외에도, 고사의 형태가 논술과 주관식이 주조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벌써 국민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일기 쓰기가 강조되고, 학생이 쓴 글을 교사가 읽고 평가해 주는 등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독서를 많이 하고, 그 내용을 요약할 수 있고, 자기의 생각을 조리있게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학교에서 키워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능력이다.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는 입시의 제 요소가 나름대로 다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입시 총점의 4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있는 고등학교 내신은 고등학교 교육이 입시위주로만 흐르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의 장치이다. 만일 이러한 장치가 없다면, 입시 주요 과목 위주로 교육이 될 것이고, 고등학교는 다시 입시학원화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고등학교가 다 같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내신 의무반영은 논리적으로 모순을 안고 있

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그 어떤 명분보다도 다급하기 때문이다. 학력고사 대신으로 들어오게 된 새로운 입시요소인 수능능력 검사도 아직은 그 성격이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원래의 계획대로 운영된다면 고등학교 교육 자체를 입시에 얽어매어 놓는 현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발전된 형태의 학력고사로서 범교과적으로 출제한다는 원칙은, 수험생이 어떤 특정 교과에 집중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수학과 물리, 그리고 화학을 동시에 해야 풀 수 있다면 그러한 문제는 상당히 고차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단순히 문제를 암기하거나 요행수를 찾아서는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출제원칙이 점차 보편화되고, 그러한 원칙에 충실한 문제가 많아지게 되면, 교사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르치게 될 것이고, 학생들도 그러한 방식으로 학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과담당 체제인 우리의 중·고등학교에서 과연 범교과적인, 탈교과적인 교수·학습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게 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잘못되는 경우에는 입시생을 위한 또 하나의 파행적 교육 활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대학별고사는 실로 14년 만에 대학에 재도입하게 된 낯익은 입시 요소이다. 1980년 7월 30일 소위 국보위 조치에 의해서 대학 본고사가 폐지됨으로써 해방 이후 35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대학 본고사는 그 맥이 끊기고 말았다. 1981학년도부터 대학본고사를 폐지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열과외의 만연이다. 소위 망국병으로 일컬어지는 과외가 만연되고, 특히 고액과외가 성행함으로써 국민적 위화감이 생기게 되었다는 점이다. 과외는 어떠한 입시제도를 택하더라도 있게 마련이다.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그 이민사회에서도 과외는 있기 마련이다. 국보위 조치는 민심수습의 정치적 목적이 강했던 조치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오랜 고질인 과외 근절이 목표

가 되었던 것이다.

둘째, 입시과목 중심의 교육으로 인한 고등학교 교육의 파행적 운영이다. 입시위주의 고등학교 교육은 해방후 줄곧 지적되어온 문제점이다. 81학년도부터는 입시 총점의 20% 이상을 내신성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었고, 이러한 내신반영률은 점차 상향조정되어 현재는 40%에 이르고 있다.

셋째, 재수생의 누증으로 인한 사회불안이다. 재수생 문제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재수생을 겨냥한 학원산업은 번창 일로에 있다.

위에서 언급된 3가지 이유 때문에 대학본고사는 폐지되었다. 본고사를 폐지하고, 국가고사인 학력고사와 내신으로만 선발해온 지 14년, 우리의 교육현실은 무엇이 얼마만큼 달라졌는가?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교육환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당시 대학 본고사는 모든 누명을 쓰고 폐지되어야 했지만, 본고사를 치르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의 교육환경은 악화가 되었으면 되었지 개선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

94학년도에 9개 대학이 대학별고사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였지만 우려했던 사회적 교육적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95학년도에 47개 대학이 대학별고사를 치를 예정인데, 이들이 택한 과목이 주로 국·영·수라 일선 고등학교로부터 반발이 일고 있다. 내신에서도 국·영·수의 비중이 큰 데다, 대학수학능력검사의 영역도 언어, 수리탐구, 영어로 한정되고, 거기다가 대학이 또 국·영·수 과목을 대학별고사 과목으로 중점적으로 채택한다면, 고등학교 교육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과외가 성행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일리가 있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대학별고사가 져야 하느냐에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대학별고사 과목에 상관 없이 과외는 있어왔고, 앞으로도 교육이 있는 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의 파행성은 원칙적으로 고등학교가 져야 할 문제이다. 교육운영은 파행적으로 해 놓고 그 책임은 우리가 질 수 없다는 태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대학별고사는 고사의 과목, 문제의 형태, 채점 방식 등등에 대해서 대학이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고사이다. 문제는 이 대학별고사에 대해서 대단히 불평등한 제약이 가해져 있다는 데 있다. 새 입시제도의 새로운 요소로 대학별고사를 도입하면서 교육부는 대학별고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

“대학별 고사는 대학의 특성 또는 계열별, 학과별 특성상 별도의 수험능력을 측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과목 이내에서 대학별로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출제의 내용으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준거하여 사고력, 판단력, 탐구력 등 고등정신능력을 주관식 위주로 측정”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 신장을 막는 주요 원인이 바로 관료주의, 획일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대학별고사를 어떻게 계획하고 운영할 것인가는 대학이 결정할 문제이다. 제한 요건의 내면에는 가능하면 대학별고사를 치르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같다.

통제위주의 입시정책으로는 대학의 다원성을 신장시킬 수도 없고, 입시제도를 이상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갈 수도 없다. 다시 도입된 대학별고사가 단명으로 끝나지 않고,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하고, 학생들의 고차적인 정신능력을 변별해 낼 수 있도록 발전되어 가려면, 대학을 신뢰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온 교육의 제 문제가 어떻게 대학입시 한 번으로 해결될 수 있겠는가? 대학입시는 능력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1차적 목적이외에, 분명히 고등학교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이끌어가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학별고사를 입시의 주요 요소로 제도입하게 된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고등학교와 대학을 교육적으로 조화롭게 연결시켜야 한다는 상식적인 명제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생각된다.

2. 대학별고사의 측정 영역

대학별고사란 수험생이 대학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대학별로 출제하여 실시하는 학력고사이다.

학력고사는 적성검사류와는 달리 자신의 학업성취 정도와 희망하는 대학과 학과를 대비하여 예측을 할 수 있는 검사이고, 능력귀인보다는 노력귀인이 크게 작용하는 검사이다. 노력한 만큼 진보할 수 있고, 그 진보를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교육적인 검사라고 볼 수 있다.

대학별고사가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고등학교의 전반적인 학업성취도 평가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했다면,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다면 높은 점수를 받게 될 것이다. 대학별고사는 내신성적이나 수학능력검사 점수보다도 교과성적에 대해 더욱 정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둘째는 대학에 들어서서 제대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능력이 있느냐를 평가한다. 대학수학 적격자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대학교육과 연결되는 고등학교의 주요 교과 성취도는 매우 높은 예언 타당도를 갖는다. 대학별고사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바로 고등학교 주요과목의 성적으로 대학 입학과 입학 후의 학업성취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학교 공부는 잘하는데 수능검사 성적은 좋지 않다는지, 그와 반대로 학교 공부는 별로인데 수능검사 성적은 좋다는지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은 수능 검사가 아직은 학력고사로서는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대학별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기초한 학력 검사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비교적 익숙한 고사이다. 그리고 높은 예측성 때문에 학생들의 불안을 덜어 줄 수 있다. 높은 예측성은 실제로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서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그런 과목과 내용이 시험문제의 형태로 제시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학습된 능력(capability)은 크게 3가지 범주로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범주는 지적 능력의 가장 기초적 형태를 이루는 것으로 학문분야의 기본개념, 지식, 정보, 법칙 및 그에 더한 이해력 등을 다룬다. 이 단계를 기초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의 학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기초 단계의 학습은 학생들이 투입하는 시간의 양으로 볼 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학교교육에서 중요시하는 영역이다. 교육전문가들조차도 사고력과 같은 고차적 정신능력이 개념의 이해와 같은 기초능력보다 더 가치있는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개념이나 법칙 또는 정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고차적 사고능력도 형성될 수가 없는 것이다.

둘째 범주는 기본 지식과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과 판단력이다. 이 범주는 흔히 고차적 정신능력이라고 하는 영역으로서 우리의 학교교육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도 하다. 사고력과 판단력은 학교교육을 통해서 길러져야 할 중요한 인간적인 능력이고 대학교육에서도 계속 중요시된다. 대학수학능력검사에서 주안점을 두고 측정해 내겠다는 영역이 바로 이 부분이다. 지식 암기 위주의 학교교육에 대한 반성으로 이 영역이 항상 새롭게 부각되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의 타성을 깨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셋째 범주는 가장 고차적인 정신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제해결력과 창의력의 영역이다. 교육의 궁극적인 두 가지 기능은 문화의 전수와 창조이다.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류문화 발전의 동인이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문제해결력과 창의력을 키워주지 못한다면, 다음 세기의 우리의 국제 경쟁력은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이나 창의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

장 가능성있는 발전 잠재력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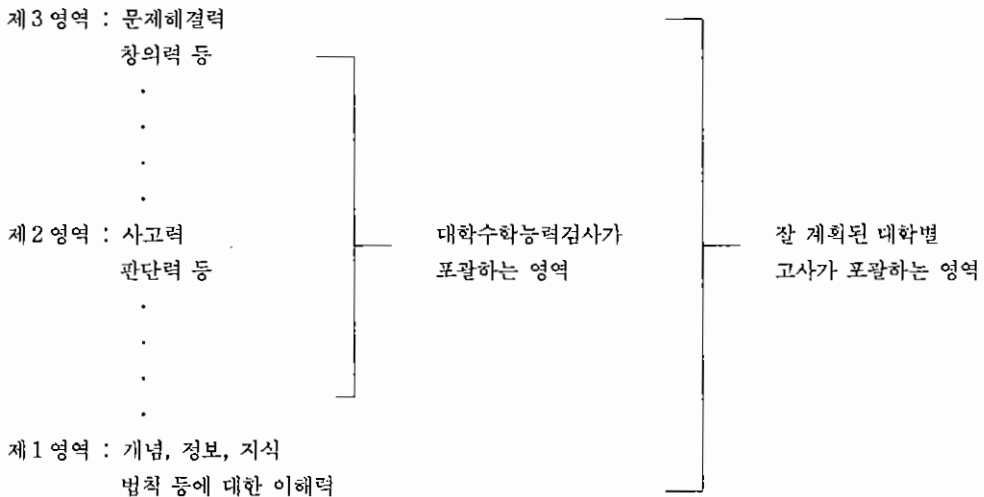
우리의 학교교육은 주로 첫번째 범주에 머물러 있고 두번째와 세번째 범주에는 대단히 취약성을 보인다. 교육과정이 탐구과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도 학교교육의 실제에서는 별로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학력검사에서도 첫째 영역을 주로 측정하여 왔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서인지 새로운 입시의 요소로 채택된 대학수학능력검사에서는 첫째 영역보다는 사고력을 요하는 둘째 영역을 주로 측정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범교과적 또는 탈교과적으로 출제하겠다는 원칙도 따지고 보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적어도 사고력 수준을 측정하겠다는 말이 된다. 1, 2차 수학능력검사가 끝난 지금, 수학능력검사에 대한 여러 차원에서의 평가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래도 사고력을 측정하겠다는 원래의 의도는 어느 정도 지켜졌다고 본다.

학력고사로서의 대학별고사는 출제자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출제하느냐에 따라 강조하는 영역이 달라질 수 있다. 독창적인 문제만을 고집한다면 주로 문제해결 및 창의력 영역을 측정하게 될 것이고,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쉽게 쉽게 기존의 양식대

로 출제한다면 지식과 정보영역을 주로 측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교육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계획된 대학별고사는 개념, 이해 등 기초영역에서부터 최상위 영역인 문제해결과 창의력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을 포괄해서 출제하게 될 것이다. 대학별고사의 출제상 장점은 대학수학능력검사에서 기피하는 기초영역은 물론, 4지 내지 5지 선다형 시험형태로는 도저히 판별해 낼 수 없는 고차적 추리력을 또한 측정할 수 있고 그 사고의 과정까지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학별고사는 문항형태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문항형태로 다양한 학습된 능력의 영역을 측정할 수가 있다. 학력 스펙트럼상에서 대학수학능력검사와 잘 계획된 대학별고사가 측정하는 학습된 능력의 범주는 <그림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학습된 능력의 영역을 구분하고, 대학수학능력검사와 대학별고사가 어디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었지만, 이것은 임의적이고 편의적인 표현이다. 대학수학능력검사가 사고력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개념과 이해수준을 전혀 측정하지 않고 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수학능력검사와 대학별고사의 가장 두드러진 차



<그림 1> 학력 스펙트럼상에서 두 검사가 주로 포괄하는 영역

〈표 1〉 수학능력검사와 대학별고사의 문항형태 비교

| 구 분 | 수학능력검사 | 대학별고사 |
|-------------------|--------|---|
| 언어능력 (국어 및 논술) | 5지 선다형 | · 4지 선다형 · 단답형, 서술형 · 요약 · 논술 |
| 수리능력 (수학) | 5지 선다형 | · 주관식 문제풀이 (정답 및 풀이과정) |
| 과학탐구 (과학) | 5지 선다형 | · 4지 선다형 · 단답형, 서술형 · 문제풀이(정답 및 풀이과정) |
| 외국어(영어) | 5지 선다형 | · 4지 선다형 · 단답형, 서술형 · 영작 |

이는 문항형태에서 나타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학능력검사는 전국응시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객관식 형태를 벗어날 수 없는 데 비해서 대학별고사는 이 문항의 형태가 자유롭다. 특히 논술, 영작, 문제풀이 등의 주관식 문제는 고차적 능력을 측정하는 데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국어의 경우 지문을 주고 지문의 범위 내에서만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과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논술형식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전자가 이해력, 사고력의 영역이라면 후자는 종합력, 창조력의 영역이다. 논술은 주제의 내용을 자기 스타일로 구조화하는 능력을 포함해서 그 주제에 대한 지식, 주장, 처방 등 총체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수학의 경우에도 5지 선다형으로 정답을 백하게 하는 것과, 문제를 실제로 풀게 하는 것은 분명히 같은 능력을 같은 잣대로 측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같은 능력의 범주라 할지라도 후자가 훨씬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영어의 경우에도 지문을 읽고 그 범위 내에서 정답을 골라내는 것과 영작을 하는 것과는 영어 능력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나타낸다.

대학수학능력검사에서는 주요개념을 기억하고 파지하는 기초능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대학별고사는 이 기초영역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지식이란 대부분 위계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어서 기초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더 높은 수준의 지식체계로 이행해 갈 수가 없다. 대학별고사의 단답형 문항은 이러한 기초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3. 대학별고사의 측정학적 특성

대학별고사를 출제할 때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바로 문항 난이도의 조절이다. 난이도 또는 곤란도란 문제의 쉽고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적인 용어이다. 난이도가 너무 높다는 말은 문제가 너무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문항의 난이도(곤란도)는 객관식의 경우는 정답률, 주관식의 경우에는 1점을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으로 측정할 수 있다. 난이도는 그 분석의 단위가 과목일 수도 있고, 문항일 수도 있다. 우선 분

석의 단위가 과목인 경우, 대학별고사가 학습된 정도를 측정한다는 교육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정답률 평균이 100점 만점에 60~70점은 되어야 할 것이란 점이다. 그러나 실제의 고사에서 이 난이도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경험이 부족한 출제자들일 경우, 대체로 문제를 어렵게 내는 경향을 보인다.

문항별로도 난이도를 분석하여 '너무 쉬운 문제', '약간 쉬운 문제', '약간 어려운 문제', '너무 어려운 문제' 등으로 구분하여 출제자들에게 송환정보를 주면, 다음번 출제시에는 난이도 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대체로 '약간 어려운 문항'이거나 '약간 쉬운' 문항들이 주류를 이룰 때 시험지가 검사도구로서 적절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변별도란 수험자들의 능력을 수준별로 어느 정도 가름해 내느냐에 관한 문제이다. 즉, 변별도가 좋은 문항으로 구성된 시험은 우수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구분해낼 수 있지만, 변별도가 나쁜 문항으로 구성된 시험은 학생의 우열을 구분해내지 못한다.

예를 들어 대학별고사 과목 A에서는 합격자의 평균과 불합격자의 평균차가 100점 만점에서 15점인 데 비하여 과목B는 5점밖에 되지 않는다면 과목A가 과목B에 비하여 변별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변별도를 추정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전 과목의 득점합계를 기준으로 전체 그룹, 상위 50% 그룹, 상위 25% 그룹으로 나누어 정답률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A문항의 정답률이 세 집단 각각 0.27, 0.31, 0.29라면 이것은 상, 중, 하위권 수험생이 이 문항에 거의 비슷한 수준의 반응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별력이 없는 문항이 된다. 반면에 B문항의 정답률이 세 집단 각각 0.45, 0.58, 0.71로 나왔다면 이러한 문항은 변별력이 큰 문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변별도를 추정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문항과 과목 총득점 간의 상관계수를 구해보는 것이다. 문항

과 과목 총점 간의 상관이 1에 가까울수록 그 문항의 변별도가 큰 것이며 0에 가까워 갈수록 변별도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체로 상관계수가 0.1보다 크면 변별도가 좋은 문항이라고 볼 수 있다.

신뢰도란 동일한 집단의 수험생들이 동형의 시험지로 연이어 2회 평가받을 때 두 성적간의 상관도를 말한다. 즉, 시험이 동일집단에서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는나의 정도를 의미한다. 1회 시행으로는 문항내적 합치도를 구할 수 있다. 문항내적 합치도란 문항 하나하나와 총점과의 상관을 나타내주는 신뢰도 계수이다.

검사의 신뢰도가 높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그 검사의 안정도가 높다는 말과 같다. 만일 신뢰도가 낮은 검사로 측정해서 100점 만점인 어떤 학력고사에서 70점을 받았다면, 동형검사로 또 측정을 해서 70점이 나올 확률이 낮다는 말과 같다. 검사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신뢰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한다. 대체로 문항간의 곤란도 및 변별도를 비교적 균일하게 조율하고, 검사의 문항수를 늘리면 신뢰도는 증가하게 된다.

타당도는 검사도구가 그것이 측정하려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대학별고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함을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하나는 대학에 들어와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은 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고등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만일 대학별고사 과목의 성적과 대학에 들어와서 받은 성적 사이에 상관성이 높다면 그 대학별고사 과목의 타당도는 분명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외적 기준에 비추어서 보는 타당도를 기준관련타당도 또는 예언타당도라고 한다. 대학별고사의 내용이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내용을 고르게 평가하고 있다면, 내용타당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대학별고사는 학생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력고사이다. 이 학력고사는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빠져야 되는 교육과정기반고사(Curriculum Embedded Test)이다. 출제위원들이 담당과목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하여 연구를 해야 하는 이

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철저히 분석하고, 2원 분류표에 의해서 고르게 출제한다면 최소한 내용타당도의 요건은 충족된다. 그러나 검사의 곤란도, 변별도, 신뢰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은 또 별도의 노력을 요하는 문제이다.

우선 출제위원들이 곤란도, 변별도, 신뢰도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하며, 모의고사를 통해서 검사의 이러한 통계적인 특성들을 출제위원들에게 계속 송환(feedback)시켜 주어야 한다. 출제자의 의도와 측정학적으로 본 통계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모의고사를 거치는 동안에 이러한 거리는 좁혀지게 된다.

대학별고사가 선발기능을 갖되 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과목의 난이도는 응시자의 정답률이 60~70점(100점 만점)이 되도록 조정한다. 문항별로 볼 때에도 난이도가 0.2~0.3 이하인(1점 만점) 문항의 출제를 피한다.

둘째, 변별력이 있는 문항의 출제를 위하여 노력한다. 적정 수준의 곤란도를 갖는 문항을 출제함으로써 변별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신뢰도는 고른 수준의 문항들을 출제함으로써 높일 수 있다. 큰 점수가 배당되는 소수의 문제들로 시험지를 구성하기보다는 작은 점수가 배당되는 다수의 문제들로 시험지를 구성하는 것이 신뢰도 제고를 위한 주요 방안이 된다.

넷째,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모든 요목을 고르게 평가함으로써 타당성있는 시험지를 만들 수 있다.

대학별고사에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선택과목간의 난이도 조정이다. 몇 개 과목 중에서 1개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 선택과목간의 난이도 조정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만일 난이도 조정을 하지 못하고, 출제위원들의 우연성과 시험보는 학생들의 운에 맡겨두게 된다면, 공평성은 훼손될 가능성이 커진다. 출제하기 전에 출제위원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난이도를 조정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다. 학생들이 시험을 본 후에 통계적으로

난이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시험점수 등화(test equating) 또는 표준점수화라고 한다. 선택과목간 등화란 결국 학력이 비교가능한 응시생 집단에서 얻게 되는 대상과목들의 점수분포가 일치되도록 하는 것으로 선형등화(linear equating), 백분위수등화(equi-percentile equating) 및 등사분위수등화(equi-quartile equating) 등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94년도 입시에서 고려대는 등사분위수등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 방법은 1차적으로 동일 학력의 수험생군으로(고교내신 1, 2, 3등급) 이루어진 비교가능 집단을 선택과목별로 선발하고 그 집단의 학생들로부터 얻게 되는 기술 통계치를 등화에 사용하는 것이다. 비교가능 집단끼리 25%점, 50%점, 75%점이 같도록 하고 0과 이들 3점 및 100점 사이는 직선으로 보간한다. 등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과목 선정이 중요한데, 이 기준과목은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고, 난이도 및 변별도의 관점에서 적절한 점수분포를 갖는 과목으로 선정한다. 물론 이 기준과목의 점수는 바뀌지 않는다. 그 밖의 선택과목에서 취득한 점수는 일정한 범주 내에서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된다. 이 시험점수의 등화 또는 표준점수화 방식은 한국의 대학입시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방식이다. 출제위원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에게도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으나 무리없이 시행되었고, 그 후에 별다른 문제 제기도 없었다. 선택과목 제도가 있는 한 이와 같은 표준점수제의 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점차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별고사에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통계학적인 분석을 통해 그때 그때 시험의 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우선 들 수 있다. 이것은 전국적인 규모로 시행되는 수능능력검사에서 아마도 가능하지 않은 일일 것이다. 평가형태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대학의 노력에 의해 시험의 질을 비교적 쉽게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은 대학별고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대학별고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보다 학생을 변별하는 힘이 훨씬 강하다는 것이 94학년도 입학시험 결과분석 결과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의 경우(안암 캠퍼스 인문계의 경우) 200점 만점의 수학능력검사의 합격자 평균과 불합격자 평균의 차이는 10.7점인 데 비하여, 대학별고사의 경우 100점 만점의 국어, 영어, 선택과목의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평균의 차이는 각각 10.0, 11.1, 10.1 이었다. 다시 말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검사로서의 힘은 대학별고사의 한 과목과 수학능력검사 전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대학별고사가 선발을 위한 고사로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강한 힘이란 결국 능력이 있는 학생을 정확하게 변별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4. 대학별고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6년여의 연구 끝에 탄생된 새 입시제도는 전체적으로 볼 때,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입시요소의 하나인 대학별고사는 고사 자체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행에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가 파생될 수도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1994학년도에는 9개교만이 대학별고사를 채택했기 때문에 조용하게 지나갔었으나, 전국의 주요 대학이 대학별고사를 채택하는 95학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 우려된다.

첫째, 입시교과목이 대체로 국·영·수 과목에 한정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가고, 과열과외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 과외란 어떠한 입시제도하에서든 있게 마련이지만, 그것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고등학교 교육의 파행성에 대한 책임을 대학별고사쪽으로 돌리는 것은 분명히

논리성이 결여된 문제제기이다. 오히려 과목수를 3 과목으로 획일적으로 제한한 것이 근원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본다. 4과목 내지 5과목 정도를 권장했다면 이러한 문제점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획일적으로 대학별고사 과목을 3과목 이내로 제한한 것은 이론적 현실적 근거가 매우 빈약하고 자승자박을 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둘째, 대학의 출제 역량, 입시관리 역량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47개 대학이 95학년도에 대학별고사를 보겠다고 했으나 과연 이 중에 몇 개 대학이 끝까지 입장을 고수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만일 교육개혁위원회나 교육부가 간섭이나 내부지도(?)를 한다면 이 중 상당수가 대학별고사를 포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명분보다도 자율관리능력이 더 중요하다. 대학별고사를 준비하려면 교수의 출제 훈련, 직원의 관리능력, 행정 및 예산상의 지원 등 대비하여야 할 요인이 많다. 이러한 것에 대한 준비없이 명분상으로만 대학별고사를 채택할 때에는 많은 위험이 따른다.

셋째, 대학의 입장에서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시험문제가 점차 어려워져 가는 경향을 보이게 될 것이다. 만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분석해서 그 수준과 범위 내에서 출제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고등정신능력 측정', '창의성 측정', '고등학교 교육의 방향제시' 등등의 명분으로 시험문제는 어려워지게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고등학교에서는 그러한 경향에 대비해야 되고, 학원과 과외는 성업을 이루게 될 것이다. 지금 교육계 인사들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상이다. 그러나 대학별고사가 앞부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연구와 분석의 바탕 위에서 착실히 추진된다면, 수학능력검사와 보완적 관계를 갖게 될 것이고 고등학교 교육을 교육본연의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대학별고사를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대학별고사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대학별고사 = 과열과외 = 고등학교 교육 파행화의 등식 속에서 대학별고

사를 보려고 하는 메스컴의 보도자세와 무관하지 않다. 제대로 실행해 보지도 않고 또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획일적인 방식에 익숙하여 온 우리 사회가 모처럼 찾아온 다양성의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면일 것이다.

대학별고사의 문제는 고사 그 자체의 특성이나 결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와 결부되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대학별고사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교육과잉'이라는 이 질곡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겠지만, 현재의 조건 속에서도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학별고사와 수학능력시험과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내용이 반복 출제되는 것에서 오는 학생 부담을 생각해서 출제 면에서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수학능력검사는 대학입학자격시험으로 그 성격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새로운 시대에 알맞게 획일주의적 통제에서 벗어나 대학별로 특색있는 학생선발 제도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학생선발에 관한 권한을 대학에 완전히 일임하여야 한다. 대학이 대학별고사를 채택한다면, 특색있는 시험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과목수라든가 출제의 형태에 대하여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별고사의 출제관리를 위해 대학간 협동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소작농 같은 대학별 경영형태에서 협동농 같은 경영체제로 바뀔 필요가 있다. 전체 대학이 참여하기는 어렵겠지만, 몇몇 대학이 입시문제를 같이 출제하는 경험을 갖

는다면 그것 자체가 대학협력의 중요한 시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대학교육협의회나 한국교육개발원과 같은 공공 기관 내에 입학시험의 평가 및 연구를 위한 전문기구를 두어, 입시의 경험을 대학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는 한 대학의 경험은 그 대학의 것으로만 끝나서 소중한 경험이 공유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섯째, 대학이 대학별고사를 채택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직 개발, 예산 배정 등 자구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연중 연구하고, 엄정한 출제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입시관리처와 같은 부서를 두어야 할 것이며, 예산과 인력을 배정해서 대학 나름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70만 대학응시생의 운명이 걸려 있는 입시문제를 개발하는 데 대학은 대학 나름으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앞부분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학입시는 대학과 응시자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사회의 여러 요인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그 중심부에 있다. 6년 연구 끝에 마련된 새로운 입시제도는 이제 대학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되어 가느냐 혹은 획일주의의 바람을 받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새로 발족된 교육개혁위원회가 획일주의의 편안함과 여론이라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바람에 떠밀리어 더 개방적이고 발전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다면, 다원화될 21세기의 교육을 논하기 어렵다고 보며 '개혁'이라는 간판은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